

국민 금융생활 안전 교육자료 · EDU-11

가족금융·상속·후견·디지털 유산

가족의 돈과 권한을 투명하게 정하고 사망·질병·판단능력 저하 때 필요한 기록을 준비한다.

학습자용 교재

본문 10.5pt 이상 · 내용 기준 2026-08-24 · NEXUS FMI 국민 금융생활 안전교육

이 교재를 사용하는 법

이 자료는 일반 교육자료입니다. 개별 계약·세금·법률 판단은 적용 시점의 공식 기관과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처음 배우는 사람은 '학습 전 필수 기초'를 먼저 읽는다. 전체 학습은 기초 35분과 8개 Part를 순서대로 진행한다. 60분 핵심 학습도 왜 배우는지·개념의 작동 과정·시범풀이를 생략하지 않고 사례 수를 줄여 진행한다.

학습 목표

- 공동생활비와 개인재산의 경계·동의 규칙을 만든다.
- 보증·증여·상속이 서로 다른 법률·세금 문제임을 구분한다.
- 대리·후견·의사결정 지원에서 권한과 기록의 중요성을 설명한다.
- 계좌·보험·채무·구독·디지털자산 목록과 접근 원칙을 준비한다.

학습 전 필수 기초

왜 이것을 배워야 하나요?

가족의 돈은 믿음만으로 관리하지 않고 권한과 기록을 나누어야 합니다

가족끼리 돈을 함께 쓰더라도 소유자·계약자·대리인의 권한은 같지 않습니다. 질병·인지저하·사망이 생기면 계좌·채무·구독·디지털 자산을 누가 어떻게 확인할지 준비가 필요합니다.

개인재산·공동재산·대리·상속·후견의 기초를 먼저 익힌 뒤 가족합의와 사후정리 사례를 다룹니다.

이 과제를 네 문장으로 먼저 이해하기

- 가족의 금융생활에는 재산뿐 아니라 채무·보증·세금·디지털 계정도 함께 포함됩니다.
- 상속은 재산만 받는 일이 아니므로 고인의 재산과 채무를 확인한 뒤 승인·한정승인·포기를 판단합니다.
-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의 돈을 임의로 관리할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 판단능력 저하나 사망에 대비해 위임·후견·유언·디지털 기록의 위치와 권한을 미리 정합니다.

이 학습이 지키는 것

- 가족 구성원의 재산과 의사
- 공동생활비의 투명성
- 상속채무 판단 시간
- 인지저하 시 적법한 대리
- 계정·구독·디지털 자산

생활안전으로 이어지는 네 단계

순서	무엇을 하는가
1	재산·채무·계정의 소유자와 계약자를 구분합니다.
2	평상시 접근권한과 비상시 연락방법을 정합니다.
3	대리·후견·상속의 법적 절차를 확인합니다.
4	목록은 남기되 비밀번호 자체는 안전하게 분리합니다.

먼저 알아둘 필수개념

각 개념은 뜻만 외우지 않습니다. 생활 예와 반대 예를 대조한 뒤 다른 개념과의 관계를 확인합니다.

기초개념 1 · 개인재산과 공동재산

누가 소유하고 누가 관리할 권한이 있는지를 구분한 재산입니다.

생활 예	해당하지 않는 예
공동생활비 계좌와 개인저축 계좌의 사용규칙을 따로 정합니다.	가족이면 모든 계좌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개념 연결: 가족관계와 법적 소유·계약 권한은 항상 같지 않습니다.

확인해 봅니다

배우자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면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나요?

답과 이유: 아닙니다. 동의와 법적 권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초개념 2 · 대리

본인을 대신해 정해진 범위의 일을 할 권한입니다.

생활 예	해당하지 않는 예
위임장에서 금융업무의 범위와 기간을 확인합니다.	가족이라는 사실만으로 모든 계약을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개념 연결: 대리는 범위·기간·본인의 의사와 기관별 확인절차가 중요합니다.

확인해 봅니다

대리권이 있으면 모든 재산을 원하는 대로 처분할 수 있나요?

답과 이유: 아닙니다. 정해진 범위와 본인을 위한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기초개념 3 · 후견

의사결정이 어려운 사람의 권리와 생활을 법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생활 예	해당하지 않는 예
법원이 정한 후견 범위에 따라 재산관리를 지원합니다.	나이가 많으면 가족이 자동으로 후견인이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개념 연결: 후견은 본인의 의사와 필요를 존중하며 법적 절차로 권한을 정합니다.

확인해 봅니다

인지가 떨어지면 가족이 자동으로 모든 권한을 갖나요?

답과 이유: 아닙니다. 적법한 대리·후견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초개념 4 · 상속

사망한 사람의 재산상 권리와 의무가 법에 따라 이어지는 일입니다.

생활 예	해당하지 않는 예
예금뿐 아니라 대출·보증 등 채무도 함께 확인합니다.	받을 재산만 선택하고 채무는 자동으로 제외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개념 연결: 상속은 재산·채무·상속인·기한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해 봅니다

상속은 재산만 받는 절차인가요?

답과 이유: 아닙니다. 채무도 포함될 수 있어 전체 내역과 선택기한을 확인합니다.

기초개념 5 · 디지털 유산

사망 뒤 남는 계정·구독·전자기록·디지털 자산과 처리 권한입니다.

생활 예	해당하지 않는 예
계정 목록과 문의처를 남기되 비밀번호는 별도 보관수단으로 관리합니다.	비밀번호 목록을 가족 단체방에 올리는 것입니다.

개념 연결: 디지털 유산은 서비스 약관·상속권·개인정보·접근보안을 함께 봅니다.

확인해 봅니다

계정 목록을 남기려면 비밀번호도 공개해야 하나요?

답과 이유: 아닙니다. 목록과 접근절차를 남기고 비밀번호는 안전하게 분리합니다.

개념이 실제로 작동하는 과정을 배웁니다

용어를 외우는 데서 멈추지 않고, 왜 필요한지와 실제 판단 순서를 생활 사례로 익힙니다.

기초학습 1 · 가족재산은 재산과 채무의 묶음

명의만 보면 가족의 금융상태를 알 수 있을까요?

가족의 금융상태에는 예금·부동산 같은 적극재산뿐 아니라 대출·보증·세금·소송상 의무도 포함됩니다. 명의와 실제 부담자가 다를 수 있어 문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족끼리 알고 있다는 기억보다 계좌·계약·등기·채무와 담당기관을 목록으로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순서로 생각합니다

- 1. 재산·채무·보증을 따로 목록화합니다.
- 2. 명의자·계약자·수익자와 관리권한을 확인합니다.
- 3. 원본 문서 위치와 정기 점검자를 정합니다.

생활 속에서 보면: 부모 명의 집만 확인하고 부모가 보증한 사업채무를 놓치면 상속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흔한 오해: 가족이 실제로 사용한 돈이니 명의는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은 분쟁을 키울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 확인

통장 잔액만 알면 가족재산 목록이 완성될까요?

답과 이유: 아닙니다. 채무·보증·세금·보험·부동산과 디지털 자산도 확인해야 합니다.

기초학습 2 · 상속의 세 가지 기본 선택

상속재산에 빚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단순승인은 재산과 채무를 원칙적으로 함께 승계하고, 한정승인은 상속재산 범위에서 채무를 변제하는 절차이며,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법원 절차입니다.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원칙적으로 3개월이라는 기간이 관련될 수 있으므로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기 전에 법원과 전문가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이 순서로 생각합니다

- 1. 사망 사실과 내가 상속인임을 안 날짜를 기록합니다.
- 2. 재산·채무·보증·세금을 조회합니다.
- 3. 선택의 효과와 법원 제출기한을 확인합니다.

생활 속에서 보면: 고인의 예금을 생활비로 먼저 사용하면 상속 승인과 관련된 법적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보존과 상담이 우선입니다.

흔한 오해: 빚이 많아 보이면 가족끼리 포기한다고 말하는 것으로 끝난다는 생각은 틀립니다. 법원 절차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 확인

상속포기는 가족 합의서만 쓰면 되나요?

답과 이유: 아닙니다. 법정 기간과 법원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초학습 3 · 위임·대리·후견

가족이면 대신 계약할 수 있을까요?

위임은 본인이 판단능력이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일정한 일을 맡기는 것이고, 대리인은 정해진 범위에서 행동합니다. 가족관계만으로 모든 금융권한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판단능력이 저하된 경우에는 성년후견 등 법적 제도가 필요할 수 있으며 본인의 의사와 최소한의 권한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이 순서로 생각합니다

- 1. 본인이 원하는 도움과 범위를 확인합니다.
- 2. 위임장·후견 결정 등 권한의 근거를 확인합니다.
- 3. 사용내역과 의사결정을 기록하고 정기 점검합니다.

생활 속에서 보면: 부모의 병원비를 내기 위해 부모 계좌를 관리하더라도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방식보다 적절한 위임과 금융회사 절차를 확인합니다.

흔한 오해: 자녀가 부모를 위해 쓰는 돈이면 기록이 필요 없다는 생각은 가족갈등과 오용 위험을 키웁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 확인

부모가 고령이면 자녀가 자동으로 계좌를 관리할 수 있나요?

답과 이유: 아닙니다. 본인의 의사와 적법한 권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초학습 4 · 디지털 유산과 사후 기록

온라인 계정도 상속 준비가 필요할까요?

디지털 유산에는 온라인 금융계정, 가상자산, 유료서비스, 사진·문서와 접근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산가치와 개인정보, 계약 종료 문제가 함께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그대로 적어 두는 것보다 계정 목록, 보관 위치, 연락기관, 본인의 처리 의사를 안전하게 남기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이 순서로 생각합니다

- 1. 중요 계정과 유료계약 목록을 만듭니다.
- 2. 자산·개인기록·폐기대상을 구분합니다.
- 3. 접근 권한과 사후 처리 방법을 공식 서비스에서 확인합니다.

생활 속에서 보면: 가상자산이 있는 경우 거래소 이름과 계정 존재, 지갑 보관 방식은 남기되 비밀키 노출 위험을 따로 관리합니다.

흔한 오해: 가족에게 모든 비밀번호를 메시지로 보내 두면 안전하다는 생각은 정보유출 위험이 큼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 확인

디지털 계정은 실물이 없으니 준비하지 않아도 될까요?

답과 이유: 아닙니다. 자산·요금·개인정보와 접근 문제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교재가 먼저 보여 주는 시범풀이

부모 계좌를 대신 관리하려는 가족

부모가 병원에 입원하자 자녀가 비밀번호를 받아 모든 금융업무를 처리하려 합니다.

1. 결정: 필요한 업무와 부모의 의사를 먼저 확인합니다.
2. 정보: 위임·대리·후견 중 적합한 절차와 기관 요구서류를 찾습니다.
3. 위험: 무권한 거래와 가족 간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4. 행동: 최소 범위의 적법한 권한을 마련합니다.
5. 기록: 사용내역과 증빙을 투명하게 보관합니다.

도움을 준다는 목적이 있어도 권한과 기록이 없으면 본인의 권리를 해칠 수 있습니다.

기초 이해확인

1. 배우자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면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나요?

확인: 아닙니다. 동의와 법적 권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2. 대리권이 있으면 모든 재산을 원하는 대로 처분할 수 있나요?

확인: 아닙니다. 정해진 범위와 본인을 위한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3. 인지가 떨어지면 가족이 자동으로 모든 권한을 갖나요?

확인: 아닙니다. 적법한 대리·후견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4. 상속은 재산만 받는 절차인가요?

확인: 아닙니다. 채무도 포함될 수 있어 전체 내역과 선택기한을 확인합니다.

5. 계정 목록을 남기려면 비밀번호도 공개해야 하나요?

확인: 아닙니다. 목록과 접근절차를 남기고 비밀번호는 안전하게 분리합니다.

6. 통장 잔액만 알면 가족재산 목록이 완성될까요?

확인: 아닙니다. 채무·보증·세금·보험·부동산과 디지털 자산도 확인해야 합니다.

7. 상속포기는 가족 합의서만 쓰면 되나요?

확인: 아닙니다. 법정 기간과 법원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8. 부모가 고령이면 자녀가 자동으로 계좌를 관리할 수 있나요?

확인: 아닙니다. 본인의 의사와 적법한 권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9. 디지털 계정은 실물이 없으니 준비하지 않아도 될까요?

확인: 아닙니다. 자산·요금·개인정보와 접근 문제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9개 질문의 뜻과 이유를 설명할 수 있으면 Part 1로 이동합니다. 어렵다면 해당 기초개념을 다시 읽고, EDU-00 공통 기초과정을 먼저 학습합니다.

PART 1 · EDU-11

기초를 확인하고 나의 준비 상태를 살핍니다

기초개념을 배운 뒤 점수보다 오늘 바꿀 행동 한 가지를 찾는다.

다음 문장을 읽고 '그렇다·연습이 필요하다'로 표시한다.

- ☐ 나는 공동재정의 뜻을 내 말로 설명할 수 있다.
- ☐ 나는 '증여'에서 생길 수 있는 위험을 확인한다.
- ☐ 계약·거래의 금액과 날짜를 한곳에 기록한다.
- ☐ 광고와 공식 설명서를 구분해 본다.
- ☐ 총비용과 최악의 결과를 비교한다.
- ☐ 문제가 생기면 연락할 공식 기관을 알고 있다.
- ☐ 가족이나 동료와 확인 규칙을 정해 두었다.
- ☐ 한 달 안에 다시 점검할 날짜를 정한다.

0~2개: Part 3과 4부터 천천히 읽는다. 3~5개: 사례에서 결정 이유를 말한다. 6~8개: 가족·동료와 확인 규칙을 공유한다.

PART 2 · EDU-11

왜 생활안전과 연결되는가

가족의 돈과 권한을 투명하게 정하고 사망·질병·판단능력 저하 때 필요한 기록을 준비한다.

안전은 지식만으로 생기지 않는다

금융문제는 돈의 크기만이 아니라 계약 시점, 정보의 비대칭, 기록의 부재, 도움을 요청하는 시점 때문에 커진다. 따라서 이 모듈은 '알기→비교하기→행동하기→기록하기'의 순서를 반복한다.

이 모듈의 핵심 관점

- 가족이라는 이유로 계좌·비밀번호를 공유하면 책임과 피해가 불분명해진다.
- 상속은 예금뿐 아니라 대출·보증·세금과 같은 의무도 함께 살펴야 한다.
- 판단능력이 떨어진 뒤 급히 만든 위임은 분쟁 위험이 크다. 건강할 때 범위와 감시 방법을 정한다.
- 디지털 유산 목록은 만들되 비밀번호 자체를 평문으로 공유하지 않는다.

PART 3 · EDU-11

핵심 구조와 생활용어

이름을 외우기보다 돈·권리·책임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본다.

용어	생활 속 뜻	확인 행동
공동재정	가구가 함께 부담·결정하기로 한 돈.	내 계약·거래에서 '공동재정'가 나타나는 위치를 표시한다.
개인재정	가구원 개인이 관리하고 책임지는 돈.	내 계약·거래에서 '개인재정'가 나타나는 위치를 표시한다.
보증	다른 사람의 채무를 일정 범위에서 대신 이행할 책임.	내 계약·거래에서 '보증'가 나타나는 위치를 표시한다.
증여	대가 없이 재산을 이전하는 행위.	내 계약·거래에서 '증여'가 나타나는 위치를 표시한다.
상속	사망으로 재산상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는 일.	내 계약·거래에서 '상속'가 나타나는 위치를 표시한다.
상속포기	법이 정한 절차와 기간에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제도.	내 계약·거래에서 '상속포기'가 나타나는 위치를 표시한다.
후견	판단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의사결정을 법적으로 지원·보호하는 제도.	내 계약·거래에서 '후견'가 나타나는 위치를 표시한다.
디지털 유산	온라인 계정·콘텐츠·가상자산·구독 등 사후 정리가 필요한 디지털 기록.	내 계약·거래에서 '디지털 유산'가 나타나는 위치를 표시한다.

공식 근거로 확인한 핵심 사실

[확정 사실] 상속인은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를 선택하는 것이 원칙이다. 확인할 조건: 법원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특별한정승인 등 예외 요건이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검토일 2026-08-22
[확정 사실] 상속재산에는 적극재산뿐 아니라 채무도 포함될 수 있다. 확인할 조건: 명의·보증·세금·소송 등 숨은 의무를 함께 조회한다. 출처: 대한민국 법원 · 검토일 2026-08-22

[안전 원칙] 선택 전에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법적 효과가 생길 수 있다.

확인할 조건: 재산을 보존하고 법원·법률구조기관에 신속히 확인한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 검토일 2026-08-22

생활 변화와 새 위험

기존 기초개념을 최근 생활 장면에 적용합니다. 적용 조건과 제도는 바뀔 수 있으므로 출처와 검토일을 함께 확인합니다.

보증·연대보증·가족 간 돈거래도 계약입니다

가족 부탁이라도 보증인은 채무자가 갚지 못할 때 큰 책임을 질 수 있고, 돈거래는 상속·세금·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 않을 것: 도장을 잠깐 빌려주거나 이름만 올리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확인할 것: 채권자·채무자·보증 범위·기간·최대 책임·해지 가능성·담보를 문서로 확인합니다.

지금 할 일: 서명 전에 독립된 법률상담을 받고, 가족 간 거래도 금액·상환일·이자·증빙을 서면으로 남깁니다.

공식 근거: 대한법률구조공단 · 법률상담 · 검토 2026-08-24

<https://www.klac.or.kr/>

구조를 읽는 네 질문

- 누가 누구에게 돈을 지급하거나 맡기는가?
- 언제 조건이 바뀌거나 의무가 생기는가?
- 손실이 나면 누가 어느 범위까지 부담하는가?
- 문제가 생기면 어떤 기록과 기한이 필요한가?

PART 4 · EDU-11

비교·판단 도구

같은 기준표를 쓰면 급한 순간에도 판단 순서를 지킬 수 있다.

다섯 단계 비교 카드

1. 공동비의 금액·납부일·담당·열람권을 합의한다.
2. 보증·증여·명의 이전은 서명 전 독립된 상담을 받는다.
3. 사망 시 금융거래·채무·보험·세금 조회 절차를 공식 창구에서 확인한다.
4. 대리·후견 권한은 대상 업무·기간·보고 방법을 문서화한다.
5. 디지털 계정은 목록·복구수단·처리 희망·보관 위치를 분리한다.

숫자 하나가 정답이 아니다. 목적·시점·총비용·최악의 결과·권리·증거가 함께 맞아야 한다.

판단 기록을 남기는 법

선택한 안만 적지 말고 제외한 안과 그 이유도 적는다. 나중에 정보가 바뀌었을 때 당시 결정이 합리적 이었는지, 무엇을 다시 확인해야 하는지 알 수 있다.

확인 시점	보인 정보	선택·제외 이유	다음 확인
결정 전	공식 설명·계약 조건	비용·위험·권리 비교	기준일·기한
결정 직후	거래·서명 결과	예상과 실제 차이	철회·변경 가능성
정기 점검	잔액·청구·공시 변화	계속·조정·종료	다음 점검일

PART 5 · EDU-11

다섯 장면 사례실습

정답을 고른 뒤 나중에 드러난 정보까지 확인한다.

CASE 01 · 배우자의 숨은 빚

생활비 계좌가 압류되고서야 채무를 알았다.

어떻게 행동할까?

- ☐ A. 공동비와 개인채무를 분리해 사실·계약·책임 범위를 확인한다.
- ☐ B. 모든 빚을 바로 대신 갚는다.
- ☐ C. 계좌를 숨긴다.

권장 선택: A. 공동비와 개인채무를 분리해 사실·계약·책임 범위를 확인한다.
판단의 갈림길: 가족관계와 법적 책임을 같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나중에 드러난 정보: 보증·공동명의·공동차입 여부에 따라 책임이 달라진다.

세 선택을 끝까지 비교하기

선택	즉시 보이는 결과	나중 위험·확인
A	공동비와 개인채무를 분리해 사실·계약·책임 범위를 확인한다.	안전한 선택
B	모든 빚을 바로 대신 갚는다.	편의만 보지 말고 비용·권리·기한을 다시 확인
C	계좌를 숨긴다.	편의만 보지 말고 비용·권리·기한을 다시 확인

내 기록

- ☐ 이 사례에서 먼저 확인할 공식 정보: _____
- ☐ 내가 보관할 계약·거래·연락 증거: _____
- ☐ 문제가 생기기 전에 정할 중단 기준: _____

CASE 02 · 부모의 보증 부탁

서류는 형식이라며 자녀에게 보증을 요구한다.

어떻게 행동할까?

- ☐ A. 최고액·기간·채무 내용을 확인하고 독립적으로 거절 또는 상담한다.
- ☐ B. 효도라 생각해 서명한다.
- ☐ C. 인감만 보낸다.

권장 선택: A. 최고액·기간·채무 내용을 확인하고 독립적으로 거절 또는 상담한다.
판단의 갈림길: 보증은 최악의 경우 전액 채무로 본다.
나중에 드러난 정보: EDU-04의 보증 점검표를 함께 사용한다.

세 선택을 끝까지 비교하기

선택	즉시 보이는 결과	나중 위험·확인
A	최고액·기간·채무 내용을 확인하고 독립적으로 거절 또는 상담한다.	안전한 선택
B	효도라 생각해 서명한다.	편의만 보지 말고 비용·권리·기한을 다시 확인
C	인감만 보낸다.	편의만 보지 말고 비용·권리·기한을 다시 확인

내 기록

- ☐ 이 사례에서 먼저 확인할 공식 정보: _____
- ☐ 내가 보관할 계약·거래·연락 증거: _____
- ☐ 문제가 생기기 전에 정할 중단 기준: _____

CASE 03 · 사망 뒤 채무

예금만 찾다가 뒤늦게 빚을 발견했다.

어떻게 행동할까?

- ☐ A. 상속재산·채무를 공식 조회하고 법정 절차·기간을 즉시 상담한다.
- ☐ B. 예금부터 인출해 쓴다.
- ☐ C. 가족끼리 구두로 나눈다.

권장 선택: A. 상속재산·채무를 공식 조회하고 법정 절차·기간을 즉시 상담한다.

판단의 갈림길: 처분 전에 전체 재산과 채무를 확인한다.

나중에 드러난 정보: 상속 승인·포기·한정승인은 기간과 행위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 법률상담이 필요하다.

세 선택을 끝까지 비교하기

선택	즉시 보이는 결과	나중 위험·확인
A	상속재산·채무를 공식 조회하고 법정 절차·기간을 즉시 상담한다.	안전한 선택
B	예금부터 인출해 쓴다.	편의만 보지 말고 비용·권리·기한을 다시 확인
C	가족끼리 구두로 나눈다.	편의만 보지 말고 비용·권리·기한을 다시 확인

내 기록

- ☐ 이 사례에서 먼저 확인할 공식 정보: _____
- ☐ 내가 보관할 계약·거래·연락 증거: _____
- ☐ 문제가 생기기 전에 정할 중단 기준: _____

CASE 04 · 반복 송금

인지능력이 저하된 부모가 같은 사람에게 계속 송금한다.

어떻게 행동할까?

- ☐ A. 안전을 확인하고 거래기록·의사상태를 보존해 후견·지급관리 상담을 한다.
- ☐ B. 휴대전화를 빼앗는다.
- ☐ C. 자녀 계좌로 전액 옮긴다.

권장 선택: A. 안전을 확인하고 거래기록·의사상태를 보존해 후견·지급관리 상담을 한다.

판단의 갈림길: 보호와 자기결정권을 함께 지킨다.

나중에 드러난 정보: 권한 없이 재산을 통제하면 또 다른 분쟁이 생길 수 있다.

세 선택을 끝까지 비교하기

선택	즉시 보이는 결과	나중 위험·확인
A	안전을 확인하고 거래기록·의사상태를 보존해 후견·지급관리 상담을 한다.	안전한 선택
B	휴대전화를 빼앗는다.	편의만 보지 말고 비용·권리·기한을 다시 확인
C	자녀 계좌로 전액 옮긴다.	편의만 보지 말고 비용·권리·기한을 다시 확인

내 기록

- ☐ 이 사례에서 먼저 확인할 공식 정보: _____
- ☐ 내가 보관할 계약·거래·연락 증거: _____
- ☐ 문제가 생기기 전에 정할 중단 기준: _____

CASE 05 · 남은 계정과 구독

사망자 명의의 구독과 디지털 계정이 계속 결제된다.

어떻게 행동할까?

- ☐ A. 공식 사망자 처리 절차와 상속 권한을 확인해 목록대로 정리한다.
- ☐ B. 비밀번호를 추측해 로그인한다.
- ☐ C. 카드만 폐기한다.

권장 선택: A. 공식 사망자 처리 절차와 상속 권한을 확인해 목록대로 정리한다.

판단의 갈림길: 권한과 증빙을 갖춘 공식 절차를 따른다.

나중에 드러난 정보: 계정별 약관과 디지털자산의 법적 성격이 다를 수 있다.

세 선택을 끝까지 비교하기

선택	즉시 보이는 결과	나중 위험·확인
A	공식 사망자 처리 절차와 상속 권한을 확인해 목록대로 정리한다.	안전한 선택
B	비밀번호를 추측해 로그인한다.	편의만 보지 말고 비용·권리·기한을 다시 확인
C	카드만 폐기한다.	편의만 보지 말고 비용·권리·기한을 다시 확인

내 기록

- ☐ 이 사례에서 먼저 확인할 공식 정보: _____
- ☐ 내가 보관할 계약·거래·연락 증거: _____
- ☐ 문제가 생기기 전에 정할 중단 기준: _____

PART 6 · EDU-11

행동계획과 기록

좋은 계획은 누가·언제·무엇을 확인할지 적는다.

1. 평상시: 분기마다 30분 가족금융회의를 한다.

실행 날짜, 확인한 공식 출처, 상대방 답변, 다음 점검일을 함께 적는다.

2. 건강 변화: 대리·후견·의료·재산관리 의사를 기록하고 전문상담을 받는다.

실행 날짜, 확인한 공식 출처, 상대방 답변, 다음 점검일을 함께 적는다.

3. 사망 직후: 임의 처분을 멈추고 재산·채무·보험·세금·계정을 조회한다.

실행 날짜, 확인한 공식 출처, 상대방 답변, 다음 점검일을 함께 적는다.

4. 정리 후: 증빙·결정·분배·해지 기록을 보관하고 남은 위험을 재점검한다.

실행 날짜, 확인한 공식 출처, 상대방 답변, 다음 점검일을 함께 적는다.

활동지 4종 활용

활동지	기록할 내용
가족금융 회의록	공동비 · 개인비 · 의사결정 · 다음 회의
중요문서 위치표	계약·등기 · 보험·연금 · 채무·세금 · 보관자
비상 권한 지도	업무 · 본인 · 대리·후견 · 감사·보고
디지털 유산 목록	계정 유형 · 복구수단 · 처리 희망 · 담당자

PART 7 · EDU-11

권리·도움 요청

권리는 증거와 기한을 갖출 때 더 정확히 쓸 수 있다.

내가 확인할 권리

- 가족 구성원 각자의 동의와 사생활을 존중받을 권리
-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등 공식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
- 후견·상속 절차를 법원·법률구조기관에 문의할 권리
- 명의도용·무단거래를 신고할 권리
- 디지털 계정 처리에 필요한 권한과 약관을 확인할 권리

권리를 쓰기 위한 다섯 칸

사실	쟁점	증거	요구	기한
누가·언제·무엇을	무엇이 다름	계약·거래·연락	구체적 답변·조치	근거와 확인일

도움 요청 문장

‘저는 ○월 ○일 ○○ 계약·거래를 했습니다. 지금 다투는 사실은 ○○이고, 가진 증거는 ○○입니다. 제가 원하는 답변·조치는 ○○입니다. 적용 기한과 다음 절차를 서면으로 알려 주세요.’

공식 확인처

기관	확인 내용	주소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https://fine.fss.or.kr/
대한민국 법원	상속·후견 절차	https://www.scourt.go.kr/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	https://www.klac.or.kr/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https://www.gov.kr/

PART 8 · EDU-11

복습·평가·다음 행동

틀린 문항은 약점이 아니라 다시 확인할 위치를 알려 준다.

핵심 복습

- 가족이라는 이유로 계좌·비밀번호를 공유하면 책임과 피해가 불분명해진다.
- 상속은 예금뿐 아니라 대출·보증·세금과 같은 의무도 함께 살펴야 한다.
- 판단능력이 떨어진 뒤 급히 만든 위임은 분쟁 위험이 크다. 건강할 때 범위와 감시 방법을 정한다.
- 디지털 유산 목록은 만들되 비밀번호 자체를 평문으로 공유하지 않는다.
- 공동비의 금액·납부일·담당·열람권을 합의한다.
- 보증·증여·명의 이전은 서명 전 독립된 상담을 받는다.
- 사망 시 금융거래·채무·보험·세금 조회 절차를 공식 창구에서 확인한다.
- 대리·후견 권한은 대상 업무·기간·보고 방법을 문서화한다.
- 디지털 계정은 목록·복구수단·처리 희망·보관 위치를 분리한다.

사후평가 10문항

문항별 정답과 해설은 별도 평가 세트와 웹 화면에서 확인한다.

1. 가족금융·상속·후견·디지털 유산에서 가장 먼저 할 일로 알맞은 것은?

- ☐ A. 공동비의 금액·납부일·담당·열람권을 합의한다.
- ☐ B. 광고의 혜택 문구만 비교한다.
- ☐ C. 문제가 생긴 뒤에 기록을 만든다.
- ☐ D. 주변 사람이 택한 방법을 그대로 따른다.

2. 비교표에 반드시 함께 넣어야 할 요소는?

- ☐ A. 현재 보이는 금액만
- ☐ B. 비용·위험·기한·보호·증거
- ☐ C. 광고 순위와 후기 수
- ☐ D. 친구가 선택한 상품

3. 계약이나 거래 뒤 가장 안전한 기록 방법은?

- ☐ A. 기억해 둔다.
- ☐ B. 상대방이 보관하므로 지운다.
- ☐ C. 계약서·설명·거래·접수번호를 원본 형태로 보존한다.
- ☐ D. SNS에 개인정보와 함께 올린다.

4. 제도나 숫자가 바뀔 수 있는 항목을 확인하는 방법은?

- ☐ A. 오래된 블로그를 따른다.
- ☐ B. 교육자료 숫자를 영구 기준으로 쓴다.
- ☐ C. 신청·계약 시점의 공식 기관 안내와 기준일을 확인한다.
- ☐ D. 광고 상담원 말만 따른다.

5. 곤란이나 피해 징후가 생겼을 때 알맞은 태도는?

- ☐ A. 추가 차입·송금으로 시간을 벌다.
- ☐ B. 연락과 서류를 피한다.
- ☐ C. 추가 피해를 멈추고 사실·기한·증거를 갖춰 공식 창구에 상담한다.
- ☐ D. 개인정보를 공개해 도움을 구한다.

6. 사례 '배우자의 숨은 빚'에서 가장 안전한 행동은?

- ☐ A. 공동비와 개인채무를 분리해 사실·계약·책임 범위를 확인한다.
- ☐ B. 모든 빚을 바로 대신 갚는다.
- ☐ C. 계좌를 숨긴다.
- ☐ D. 공식 확인 없이 계약이나 거래를 진행한다.

7. 사례 '부모의 보증 부탁'에서 가장 안전한 행동은?

- ☐ A. 최고액·기간·채무 내용을 확인하고 독립적으로 거절 또는 상담한다.
- ☐ B. 효도라 생각해 서명한다.
- ☐ C. 인감만 보낸다.
- ☐ D. 공식 확인 없이 계약이나 거래를 진행한다.

8. 사례 '사망 뒤 채무'에서 가장 안전한 행동은?

- ☐ A. 상속재산·채무를 공식 조회하고 법정 절차·기간을 즉시 상담한다.
- ☐ B. 예금부터 인출해 쓴다.
- ☐ C. 가족끼리 구두로 나눈다.

☐ D. 공식 확인 없이 계약이나 거래를 진행한다.

9. 사례 '반복 송금'에서 가장 안전한 행동은?

- ☐ A. 안전을 확인하고 거래기록·의사상태를 보존해 후견·지급관리 상담을 한다.
- ☐ B. 휴대전화를 빼앗는다.
- ☐ C. 자녀 계좌로 전액 옮긴다.
- ☐ D. 공식 확인 없이 계약이나 거래를 진행한다.

10. 사례 '남은 계정과 구독'에서 가장 안전한 행동은?

- ☐ A. 공식 사망자 처리 절차와 상속 권한을 확인해 목록대로 정리한다.
- ☐ B. 비밀번호를 추측해 로그인한다.
- ☐ C. 카드만 폐기한다.
- ☐ D. 공식 확인 없이 계약이나 거래를 진행한다.

30일 뒤 점검

오늘 바꿀 행동 1개, 확인할 공식 출처 1개, 함께 점검할 사람 1명, 다시 볼 날짜 1개를 적는다.

주차별 실천 기록

주차	확인한 행동·거래	새로 알게 된 사실	다음 주 행동
1주			
2주			
3주			
4주			

부록 A · 내 생활 적용 체크리스트

수업이 끝난 뒤 실제 계약·거래에 적용한다. 개인정보는 적지 않고 확인 여부와 다음 행동만 표시한다.

점검 질문	확인	다음 행동·날짜
가족이라는 이유로 계좌·비밀번호를 공유하면 책임과 피해가 불분명해진다.	☐	
상속은 예금뿐 아니라 대출·보증·세금과 같은 의무도 함께 살펴야 한다.	☐	
판단능력이 떨어진 뒤 급히 만든 위임은 분쟁 위험이 크다. 건강할 때 범위와 감시 방법을 정한다.	☐	
디지털 유산 목록은 만들되 비밀번호 자체를 평문으로 공유하지 않는다.	☐	
평상시: 분기마다 30분 가족금융회의를 한다.	☐	
건강 변화: 대리·후견·의료·재산관리 의사를 기록하고 전문상담을 받는다.	☐	
사망 직후: 임의 처분을 멈추고 재산·채무·보험·세금·계정을 조회한다.	☐	
정리 후: 증빙·결정·분배·해지 기록을 보관하고 남은 위험을 재점검한다.	☐	

한 달 회고

- ☐ 내가 멈춘 위험한 행동: _____
- ☐ 공식 정보로 바뀌 확인한 판단: _____
- ☐ 가족·동료와 새로 정한 규칙: _____

부록 B · 공식정보 확인·변경 기록

한도·요건·기한·기관 서비스는 바뀔 수 있다. 적용 날짜의 공식 안내를 확인하고 바뀐 내용을 적는다.

기관	확인할 내용	확인 날짜·문서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대한민국 법원	상속·후견 절차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변경 이력

날짜	바뀐 내용	영향 받는 Part·활동지	확인자

내용 기준 2026-08-24 · 다음 정기점검 2026-11-20. 긴급한 제도 변경은 정기점검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즉시 반영한다.